

남원시, 글로벌캠퍼스 간담회

폐교된 서남대 남원캠퍼스 확보 방안 대한 긍정적 논의 등 이주호 부총리 "교육정책 방향과도 잘 부합해... 적극 지원"

남원시는 지난 21일, 교육부가 전북대학교 본부 회의실에서 글로벌대학30 사업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글로벌대학 간담회'에서, 글로벌캠퍼스 설립 부지인 폐교된 서남대 남원캠퍼스 확보 방안에 대한 긍정적 논의가 있었다고 22일 밝혔다.

남원시는 지난해부터 폐교된 서남대 남원캠퍼스 부지매입을 검토해 왔으며, 전북대가 글로벌대학30에 예비지정된 지난 6월부터 본격적인 부지매입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매입에 필요한 예산도 확보된 상태로 늦어

고 내년 2월에는 부지매입을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매각 당사자인 서남학원 청산인과 매입과 관련한 협의를 이어오고 있어 예상치 못한 변수만 없다면 계획대로 매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북대 캠퍼스 설립을 위해선 남원시가 매입을 앞둔 서남대 남원캠퍼스가 국유재산으로 전환되어야 하는데, 국유재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의 긍정적 입장을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으로,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러한 상

황을 이주호 부총리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내학구조개혁은 지역사회 발전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서남대 부지를 재생하겠다는 혁신안이 지역 발전의 선도모델이 되고, 교육부의 정책 방향과도 잘 부합하기 때문에 교육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는 남원시로서도 전북대 남원 글로벌캠퍼스 설립에 필요한 부지확보 문제를 교육부가 함께 해결함으로써 글로벌대학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주호 부총리와 최경식 남원시장 외 우봉기 지방시대위원장, 양오봉 전북대 총장,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 서거석 전북도교육감, 우병기 전주시장 등이 참석했으며 참석자 모두 전북대 글로벌대학30 사업의 혁신성을 높게 평가하며 성공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우봉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지역 살리는 정책적 수단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정책으로 평가하며, 현재 교육부가 지역혁신을 위해 중점 추진중인 글로벌대학30과 교육발전특구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전북대 글로벌대학30 성공을 위해 지자체의 역할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이 다시 생동하기 위해선 지역교육의 혁신이 중요해 전북대뿐만 아니라 지역내 교육기관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난 21일 글로벌대학30 사업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북대학교 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글로벌대학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순창군은 지난 22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LG헬로비전(대표이사 송구영)과 전라북도 향토음식인 순창고추장불고기 온라인쇼핑몰 판매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순창고추장불고기 쇼핑몰 '착륙'

순창군-LG헬로비전, 온라인 쇼핑몰 판매 협약 체결 체결

민선 8기 최영일 순창군수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관광음식개발로 탄생한 순창고추장불고기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거듭날 준비를 마쳤다.

군은 지난 22일 순창군청 영상회의실에서 ㈜LG헬로비전(대표이사 송구영)과 전라북도 향토음식인 순창고추장불고기의 온라인쇼핑몰 판매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식은 최영일 군수와 ㈜LG헬로비전 커머스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강명신 전무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군은 전국 최초의 공유주방인 순창발효소스 생산동에서 순창고추장 소스를 생산해 공급하고, ㈜LG헬로비전은 운영 중인 제철장터 쇼핑몰에서 고추장불고기를 판매해 수익을 창출할 계획이다.

그동안 실무자 간 수차례에 걸친 상품화 협의를 거치면서 고추장불고기의 맛도 중요하지만 순창군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제품 판매에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LG헬로비전은 군의 적극적인 협조로 상품화 단계까지 왔으며 매출 10억 원을 목표로 홍보에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LG헬로비전 강명신 전무는 "전 세계인이 즐기는 K-Food의 핵심에는 순창고추장이 있다"며, "가장 세계화할 수 있는 자원이 순창에 있는 만큼 순창군과 협력해 순창의 음식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진출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협약은 순창의 대표 음식인 고추장불고기를 브랜드화하는 걸 넘어서 그동안 아쉬움이 많았던 음식관광산업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향후 순창은 고추장과 함께 고추장불고기로 지역적인 이미지를 다져나가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2024 옥정호 국사봉 해맞이 축제 개최

윤암면 입석리 국사봉 주차장서

송구영신(送舊迎新), 희망찬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아온다.

임실군이 갑진년 새해를 맞아 오는 1월 1일 윤암면 입석리 소재 국사봉 주차장에서 제13회 국사봉 해맞이 축제를 개최한다.

옥정호의 풍광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국사봉은 전라북도 최고의 일출 포인트로 자욱한 옥정호 물안개 위로 떠오르는 붉은 해는 산과 바다에서 마주하던 해와는 또 다른 매력을 자아내는 곳이다. 오전 6시부터 시작되는 이번 행사는 2시간가량 이어지는 가운데 통기타 공연과 퓨전타악공연을 시작으로 불꽃놀이, 개회식, 신년맞이 기원제 순으로 진행된다. 청룡의 해를 맞이하

는 새해 소망 카드 달기, 출렁다리 포토 존, 따뜻한 떡국 무료 나눔 등 다채로운 즐길거리도 준비된다.

군은 많은 해맞이 인파가 예상됨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임실경찰서, 임실소방서 등 관계기관과의 안전 관리 실무위원회, 사전 안전 점검 등을 통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안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맞이 인파가 일시에 밀집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국사봉 전망대와 행사장 곳곳에 안전 관리 요원을 배치한다.

특히 차량정체 완화를 위해 오전 4시부터 10시까지 셔틀버스 운행(쌍암리 윤암초 옆, 입석산장 앞→행사장)은 물론, 교통 및 주차관리 인력도 집중 배치하여 축제를 찾는 관광객의 안



국사봉 해맞이축제 (사진=임실군 제공)

전사고 예방과 편의 향상에 힘을 계획이다. /임실=진홍명 기자

순창군, 전북도 지방하천정비 평가 '우수'

순창군이 연말을 맞아 각 분야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소식이 연달아 이어지고 있다.

군은 최근 전라북도에서 주관하는 '2023년 지방하천정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제방·호안·하상 정비와 가동보 관리, 하천 내 불법행위 단속 등 지방하천 관리 전반에 대해 춘계와 추계로 나눠 2차례에 걸쳐 자체평가와 정비평가를 통해 실시됐다.

이번 수상의 배경에는 지방하천 24개소에 총 29억 원을 투입해 재해예방에 기여한 점과 하천의 물 흐름에 지

장을 주는 잠목 및 퇴적 토사, 부유물 질 등을 제거하는 하도 준설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하천환경 관리에 힘써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으며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특히, 군은 경천과 추령천의 하상준설을 통해 통수단면을 확보하고 하천경관 정비에 우수성을 인정받아 이번 우수기관 선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전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지역 소식통

남원소방서, 연말연시 소방 안전대책 추진

남원소방서(서장 소재실)는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성탄절·연말연시에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4년 1월 12일까지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성탄절이나 연말연시에는 교회 등 다중이용시설, 대형판매시설, 해맞이 명소 등에 많은 인파가 밀집하고 겨울철 화기 사용 증가로 화재 위험요인 또한 증가해 작은 화재로도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안전대책으로 △화재취약 다중이용시설 화재안전조사 △소방관서장 현장 행정지도 추진 △나홀로 이동 소방안전교육 △동동 동화축제·바래봉 눈꽃축제 등 축제 안전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연말까지 운영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지난 15일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내용 발표에 따라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을 이달 31일자로 종료한다고 22일 밝혔다.

개편 내용은 최근 PCR 검사 건수 감소 및 보건소 기능 정상화 필요 등을 고려 △선별진료소 12월 31일자로 운영 종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검사·치료를 지속 지원 △일반의료체계전환을 위해 지정격리병상은 해제 △치료를 · 예방접종은 무료, 중증 입원치료비 일부 지원 △병의원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양성자 감시체계 유지 등이다.

먹는 치료제 대상군(60세 이상인 자,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은 기존처럼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에서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고, 보건소 선별진료소 우선순위 대상자 중 60세 이상인 자, 의료기관 입원예정자, 해당 환자의 상주 보호자(간병인)도 일반의료기관에서 무료 PCR 검사가 가능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